

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

# <톡톡, 작가님이 보낸 질문>

2025.8.22-10.26

2025 아르코미술관 예술로(路)소품

《안티-셀프: 나에게 반하여》



아르코미술관



?

한급감성이냐...

명태보 때!

대명태학의 부장이 딱 내 부장의 부장.

정규명태 <그시그로부의 팀들> 후원합니다.

안녕히 상사한 부장의 명태학장이요?

**<강홍구>**

나만이 가지고 있는 B급 감성이 있나요?

Q

유산

네가 나를 가장 싫어한 나머지

중세원래,

하지만 네가 갖지않기 귀찮추

있어서 감내나마 기본러라

아부 물건이나 집에 산 떡 들이곤 합니다

그때놓고선 집에 사리가 없다고 날아온 하시오

세 집으로 세 집이 아니라 물건들로 집입니다

언 세쯤 물건에 대하니오, 십이 사라질까요?

**<김나영&그레고리 마스>**

근래에 오래되어 버린 사물이 있나요?

버려진 사물의 입장이 되어 서신을 써 주세요.



스무 살 때 처음으로 상경을 했다.  
 번잡하게 특급으로 나를 아는 이로부터 떠났다.  
 한 달 정도는 즐거웠다.

나를 아는 이로부터 떠나 리징한 자취를 느낀 것  
 같았다 나는 내가 행복한 줄 알았다  
 리지만, 딱 그때까지였다  
 안전한 곳 즉, 나를 알고 있어서 내가 위험할 때  
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곳. 그곳을 떠나고  
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.

### <김옥선>

내가 사는 곳에서 가장 멀리 떠나본 장소는 어디였나요?

그곳에서 느낀 감정은 어땠나요?



안녕하세요 작가님! 정말 잘 감성했습니다  
 저는 18살이 가을 황재, 작가님의 <유럽에서  
 살아남기 >의 경험을 읽으면 저에게는 그것이  
 <서울에서 살아남기 >였습니다. 찬바람, 가을청소연습의 거리  
 등을 진정하며 2주를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던 (고생했던)  
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.  
 취약해서 말 못하는 존재, 소외된 존재들에게, 도움과 이해  
 마음이 더 가깝게 그때 경험들을 때문 아닌가  
 싶어요 저는 생존과 자립의 공포 속에서 시간을  
 버티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.  
 도시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장서라도 될 곳을  
 작위 배비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

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

노력했던 경험이 있나요?

### <하차연>

!!

서의 재능은 미술관이  
실수로 볼 기회를  
조용히 걸어갈 수 있는 것  
입니다

= 저의 재능은 미술관에  
실수로 찌리를 신  
고왔을 때 조용히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

= 저의 재능은 미술관에 실수로 찌리를 신  
고왔을 때 조용히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.

### <김지평>

남들이 보기에 별것 아닐 수도 있는

나만의 재능이 있나요?

!!

고백 ♪

사람들이 자신의 버릇을  
저에게 잘 털어놓아주네요.  
4강인 강철상자는 밖으로 댕겨주는데  
리튬은 거품일 때가 제일 좋아요.  
상어의 잠을 털어주는 느낌 신

### <김지평>

남들이 보기에 별것 아닐 수도 있는

나만의 재능이 있나요?